

#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빛그린산단 이전 속도 붙나

3년째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이전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5일 금호타이어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시와 광산구,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최근 공장 이전 논의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입지 등 이전 방안과 기존 공장 부지 개발 방향을 논의할 계획으로, 향후 추가 의를 거쳐 입장을 조율해 공장 이전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호타이어가 지난 2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언론인 출신 김진영 한반도미래연구원 고문을 사외이사로 선임한 것을 두고 금호타이어가 공장 이전 논의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부지는 빛그린산단이 유력한 상황이다. 50만㎡가량 공장을 수용할 수 있을 뿐더러, 분양기와 착공까지 절차 등 조건이 비교적 양호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개발제한 구역(그린벨트) 해제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급변하고 있는 자동차 시장에 따라 낡은 설비를 대체하는 등 신규 투자가 시급해 이전을 서둘러야 하는 금호타이어 입장에서도 빛그린산단 만한 부지를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광산구와 함평군에 걸쳐있는 산단부지 중 광산구에 속한 산업시설 용지가 충분하지 않아 일부가 함평군으로 편입하게 된다는 게 변수다.

앞서 광산구와 함평군에 걸친 광주 글로벌모터스 공장 경계를 조정해 함평 부분을 광주로 편입시키고, 함평에는 금호타이어 공장을 이전시키는 절충안도 제시됐지만 사실상 무산됐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현 광주공장 대지 매각으로 2조원 차익이 생긴 금호타이어는 공장 이전 비용과 차입금 상황에 절반씩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

광주시·광산구 등 협의체 회의 부지 일부 함평군 편입 변수

‘역외 이전’ 부정 여론 배제 못해 금타 노조 “시 입장 밝혀야” 성명

고 있다. 용지 매각으로 자금을 확보해 신규 설비 투자와 재무구조 개선, 경영정상화에 나서야 할 금호타이어는 이전이 시급할 수밖에 없고, 광주송정역 주변 개발 시급성 등을 고려한 광주시와 광산구 역시 함평 이전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함평 이전은 ‘역외 이전’이라는 점에서 광주 지역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지역사회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지지부진하던 빛그린산단 이전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금호타이어 정상화 투쟁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송정리 역세권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광주공장 이전을 위한 공론화 주민설명회까지 진행한 광주시가 전남도·함평군과 빛그린산단 내 공유부지 경계문제로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전을 확정하지 못하는 것은 금호타이어 구성원을 기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용섭 시장이 최근 기자회견회에서 긍정적인 광주공장 이전 검토를 전제로 ‘광주공장 이전 TF 협의체’를 다시 가동한다고 밝혔지만 진행 속도는 매우 더딘 상태”라고 우려를 표했다.

투쟁위는 “광산구청장은 최근 관내 이전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금호타이어 사측은 빛그린산단 내 함평 부지 이전을 신중한 상태”라며 “이용섭 시장은 절차와 공무원들 핑계를 대지 말고 광주공장 이전에 대한 결단이 담긴 공식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이용섭 시장이 최근 기자회견회에서 긍정적인 광주공장 이전 검토를 전제로 ‘광주공장 이전 TF 협의체’를 다시 가동한다고 밝혔지만 진행 속도는 매우 더딘 상태”라고 우려를 표했다.

투쟁위는 “광산구청장은 최근 관내 이전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금호타이어 사측은 빛그린산단 내 함평 부지 이전을 신중한 상태”라며 “이용섭 시장은 절차와 공무원들 핑계를 대지 말고 광주공장 이전에 대한 결단이 담긴 공식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5일 오후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시주민자치연합회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연합회의 출범을 축하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 광주시 주민자치연합회 공식 출범

96개동 참여... 학술연구·정책개발·주민자치·공익사업 등 실행

광주공동체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주민자치·공익사업을 실행하게 될 광주시 주민자치연합회가 공식 출범했다.

광주시 주민자치연합회는 5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용집 시의회 의장, 광주시주민자치연합회 임원, 관내 96개동 주민자치회장, 주민자치위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

출범식은 신임회장 취임, 내·외빈 축사, 창립축하 퍼포먼스 등 기념행사에 이어 주민자치연합회 주요 안건 심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연합회는 김동수씨를 대표회장, 김명기·박태순·김경록·이철승씨를 공동회장에 각각 선임했다.

안전심의회 전광 주민자치박람회 참여, 광주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 워크숍 개최 등의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심의했다.

광주시주민자치연합회는 광주지역 관내 96개동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회원 3000여명으로 구성된 단체로,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학술연구와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 자치역량 함양과 주민자치사업과 공익사업을 실행해 주민공동체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새롭게 출범하는 광주주민자치연합회가 지역의 역량을 결집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 전남 보건소 인력난 ‘숨통’

이달 말 신규 100명 투입

코로나 19 장기화로 일선 보건소의 피로가 누적된 가운데 이르면 이달 말 100명에 이르는 간호·보건진료직 신규 공무원들이 일선 방역 현장으로 투입될 전망이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1년도 전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통해 전남도는 오는 19일 간호, 보건진료직 8급 공무원 100명을 최종 선발한다. 간호직 78명 가운데 3명은 전남도에 나머지 75명은 각 시군에 배정한다. 곡성 11명, 목포 9명, 순천 7명 등 시군에 따라 배정 인원이 다르다.

보건진료직 22명은 모두 각 시군으로 배정한다. 간호직과 보건진료직 공무원들은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를 보유한 이들이다.

전남도는 이들 외에도 보건소 등 일선 방역 현장 인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로 간호·보건진료직 공무원 선발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초 국내에 유입된 코로나 19가 장기화하면서 보건소 등 일선 방역 현장에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피로를 호소한다. 사실상 휴일, 연휴도 없이 코로나 19 진단 검사, 역학조사 등 방역 업무에 동원되면서 일부 간호·보건진료직 공무원들의 경우 장기 휴가 또는 사직서를 제출할 정도로 업무 강도가 세다고 알려진다.

전남도 관계자는 “신규 간호 및 보건진료직 공무원이 일선에 투입되면 업무 부담이 다소나마 줄어들 것”이라며 “코로나 장기화로 추가 인력 모집을 요구하는 시군이 있어 현재 수요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전남 난임·우울증 상담 급증

상담센터 상반기 이용 21% 늘어 하반기 ‘찾아가는 상담센터’ 운영

전남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이용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 들어 6월 말 현재까지 상담센터 이용자는 60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98명)보다 21% 증가했다. 지난 3월부터 시·군 보건소를 방문하는 난임부부에 대해 난임·우울증 선별검사를 하고, 진료가 필요한 난임부부는 상담센터로 연계 지원하면서 이용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부터 이동 거리가 멀어 상담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난임 부부에게 ‘비대면 온라인 상담서비스’를 하고 있다.

태출민 전남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장은 “난임 시술을 받으면 쉽게 우울감을 느끼고 불안해질 수 있다”며 “우울감 검사(PHQ-9), 불안감 검사

(BAI), 정신건강척도(WEMWBS00) 등 선별검사를 해 대상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심리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상담센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임상심리사가 상주해 난임부부와 임신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을 무료로 하고, 자조모임과 정신건강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정책총괄관은 “심각한 저출생 위기를 겪는 우리나라에서 난임부부와 임신부를 지원하는 것은 배려가 아닌 공동체의 책무”라며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운영해 출산여성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난임부부의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회당 20만~150만원, 연 2회)하고,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대상을 남성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전남도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8월까지를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에 나선다.

코로나19로 사업장 관리가 느슨해진 시점에서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불법 무단배출 및 환경오

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단속은 감시·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 자체점검 강화 요청 및 사전홍보, 사업장 집중감시·단속,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 기술지원까지 총 3단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



##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착오송금

2021년 7월 6일부터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도와드립니다

### 반환지원 신청대상

- 7월 6일 이후 발생하는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 착오송금
- \* 연락처를 통한 간편송금 등 수취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예금보험공사가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제외

### 신청절차

- 1단계** 송금할 때 이용한 금융회사에 우선 연락하여 착오송금 반환 요청

### 2단계

- 금융회사 연락을 통해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
- \* 1단계를 거치지 않은 경우 제도 이용 불가

### 반환지원 신청시, 꼭 알아야 할 점!

- 회수 관련 비용은 신청인 부담
- 회수된 이후 동 비용을 제외한 잔액 지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를 참조하십시오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